

'예술 · 지역사회 연결' 창작적 도전 만나다

완주 두베 창작 레지던시 아트커넥션 프로젝트 성과보고전시 31일까지 개최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창작공간 두베(DUBE)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아트커넥션 프로젝트 성과보고전시를 개최한다. 두베 창작 레지던시는 올해 아트커넥션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적 도전과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예술가들이 작업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을 선보이며, 예술과 관객, 그리고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두베 창작 레지던시는 (재)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입주 작가들이 예술적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지원했다. 고지은, 이민우, 이수아, 유시라가 한 해 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공개하는 이번 전시는 그들이 창작 과정에서 탐구한 다양한 주제와 시도들을 한자리에 만나볼 기회다.

고지은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대지미술, 현대무용, 음악을 결합한 작업을 선보였다. 그녀의 작업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돌아보게 한다. 이민우 작가는 라이브 페인팅을 통해 관객과 실시간으로 감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창작공간 두베(DUBE)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아트커넥션 프로젝트 성과보고전시를 개최한다.

정을 교류하며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탐구했다. 그의 작품은 현대인의 정체성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수아 작가는 전통 기법

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감정적 울림을 전달했다. 유시라 작가는 기존의 창작 방식을 넘어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실험하며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시도했다.

특히, 두베의 레지던시 운영 기간동안 제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작가들과의 네트워킹 활동 및 완주문화재단 사업 일환인 소양아간경관사업의 NFT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작가들의 확장된 작품활동을 지원했다.

두베 레지던시 운영하고 있는 이민희 대표는 "이번 레지던시 활동을 통해 단순히 창작 공간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과 사람, 공간, 시간이 만나는 접점을 확장하며 지역사회와 창작자 간의 새로운 대화를 이끌어 낸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두베는 앞으로도 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창의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지역 예술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시는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두베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린다. 문의는 전화(063-243-5222)로 가능하다. /완주=열재복 기자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은상' 수상

전주문화재단, 전국 단위 지역 운영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단위 지역 운영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전국에 조성한 공연예술연습공간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관율과 전반적인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항목으로는 △운영 및 관리 △시설기준 및 안전 △지역특화 노력 △공연 생태계(가산점) △ESG(가산점) 등이 있으며, 전주문화재단은 전국 20개의 공연예술연습공간 중에서 세번째로 기초 지자체 중 최상위에 랭크 되어 은상을 받게 되었다.

전주문화재단은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공연예술가를 위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하고자 9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다. 전주연습공간은 지난해 한 해 500회



이상의 대관 실적에 55%를 넘는 대관율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연습공간으로 꼽히고 있으며, 올해 대관 실적은 이미 1천500회, 이용인원은 1만5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이하 전주연습공간)은 공연 연습 대한 수요가 많고 안정적인 대관과 저렴한 대관료로 지역의 많은 공연예술인이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청년 도예가 유치 · 인력 양성 '맞손'

부안청자박물관-단국대 도예과, 업무협약 체결

부안청자박물관(부안군수 권익현)은 부안청자산업 활성화와 청년도예가 유치 및 전문도예 인력 양성을 위한 마련을 위하여 단국대학교 도예과 및 부설연구소인 한국전통도예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최응한 단국대 도예과 학과장, 한국전통도예연구소 임현자 소장이 참석했다.

단국대학교 도예과와는 도예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통도자, 산업도자, 환경도자 등 다양

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도예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단국대학교 부설 연구 기관인 한국전통도예연구소에서는 도자예술에 관한 학술적 연구, 출판물 간행, 도예전공자의 실습 · 실습의 지도 및 시설 제공 등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추진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자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도자산업 육성 협력, 지역 청자공예 문화지원에 대한 공동 조사 및 공모사업 추진, 지역 도예가와 교류

등 상호 간의 공동 발전과 지역자원 청자를 통한 인구유입 및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선 12월에는 부안상감청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심화전수 프로그램에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물레성형 및 상감기법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단국대학교 도예과 및 한국전통도예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자문화교류와 청년도예가 유입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기쁘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도자관련 정보교류 및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통한 부안지역 도자산업 상생발전과 상감청자의 발생지 부안청자 문화를 MZ세대 도예가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국립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소장 김창경)와 학술교류 업무 협약을 전주대 한지산업관에서 지난날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학술 관련 연구 자료 및 데이터 교환, 공동연구 활동 상호 지원, 학술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및 지원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학 고전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로서 협동 번역사업, 인공지능 한문 번역 및 해석 사업, 인문한국플러스사업(HK+) 등을 통해 국내외의 한국학 중심 연구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립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융합연구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해역인문학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 대학의 관련 정책 개발 및 국제교류 또



한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이 강점을 지닌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문학의 새 영역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 국가유산 · 전통사찰 소방 방재 일제점검 완료

정읍시가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에 나섰다.

시는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134개소 중 중요목조문화유산인 피향정 등 국가유산 53개소와 대장사 등 전통사찰 10개 사찰 등 63개소를 대상으로 소화기 등 소방 방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마쳤다고 지난날 29일 밝혔다.

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기와 소화전 점검을 진행

했다. 점검 내용은 소화기의 유효기간, 지시압력계 압력 이상 유무, 소화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교체와 보수 작업을 병행했다.

교체 및 정비 작업에서는 총 390개의 소화기를 점검하고, 작동 불량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33개의 소화기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교체된 소화기는 즉각 현장에 배치돼 화재 대응력을 강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안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